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일 개통

월급쟁이가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일괄제공' 신청자 19일까지 확인·동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접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접자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간소화 자료 기부금으로 추가 제공된다. 기부금 단체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를 받고 한도도 100만원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35%로 올랐다.  
또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기사 관련 단순 노동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혜택 기부금 세액공제율 15%에서 20%로 확대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손택스도 간편인증 가능...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올해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페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합금 자료는 기존 수익자(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 제공된다.  
◇공제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최순건 제31보병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보병사단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제31보병사단 상호협력 협약

광주은행은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최순건 제31보병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보병사단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과 제31보병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함께 앞장서고, 양 기관의 친선교류 및 제31보병사단장병들의 금융 우대 서비스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제31보병사단 제휴카드를 출시해 전 가맹점 최대 0.6% 캐시백을 제공하고, 주유·영화·커피·KTX 이용금액 할인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포함시켰다. 중흥골드스파·여수디오션리조트·광주패밀리랜드·기아챔피언스필드·온라인쇼핑·군PX·배달의민족 이용금액 할인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제31보병사단을 위문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각 1천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국토방위에 힘쓰는 항토부대 장병 여러분 덕분에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제31보병사단과 광주은행의 상생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농어민 중심 현장경영 실천" 김신환 영산강사업단장 취임



김신환제31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사진>이 13일 취임했다. 신임 김 단장은 "영산강사업단의 최우선 과제로 영산강 3, 4지구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ESG경영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과 농촌을 위한 현장중심의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조선대 토목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1년 공사에 입사해 본사 감사실, 사업계획처와 순천광양여수지사장, 나주지사장, 해남완도지사장을 역임했다. /황애란 기자



"졸업시즌, 꽃다발 선물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3일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졸업시즌을 맞아 다양한 꽃다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 지난해 광주·전남 수출 '역대 최대'

2018년 512억달러 기록 넘어 588억달러

지난해 코로나19의 충격에도 지역 수출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이 13일 발표한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수출은 587억9,200만 달러로 직전인 2020년 408억6,400만 달러와 비교해 43.9% 증가했다.  
지역별로 광주가 전체의 27.4%인 161억200만 달러, 전남은 426억8,900만 달러로 72.6%를 차지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첫 해인 2020년 누적 수출액은 광주가 137억7,200만 달러,

전남은 270억9,200만 달러였다.  
2019년 460억200만 달러에서 이듬해 11%가량(52억 달러) 줄어든 뒤 지난해는 수출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난 셈이다.  
특히 지역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던 2018년(512억8,600만 달러)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수입도 2019년 387억700만 달러에서 2020년 295억1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준 뒤 지난해 448억9,700만 달러로 회복했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138억9,500만 달

리로 2020년과 2019년 각 113억6,300만 달러와 72억9,500만 달러와 비교해 큰 폭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 주요 수출 품목은 광주지역 수송장비와 반도체가 59억5,000만 달러와 49억7,000만 달러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전제품(14억2,000만 달러), 기계류(7억8,000만 달러), 타이어(6억 달러) 순이다.  
전남에서는 화장품이 166억2,000만 달러(38.9%)로 수출 1위를 기록했고, 석유제품(113억7,000만 달러), 철강제품(75억 달러), 수송장비(33억3,000만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연수 기자

## 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수출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은 해외시장을 선도할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내달 9일까지 '2022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기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함께 수출 선도기업과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다.  
지정된 기업은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마케팅, 지자체 자출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 맞춤형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전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자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기업이며, 올해 광주·전남지역은 총 12개 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은 내달 9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혜린 기자

## 우체국쇼핑, 설맞이 최대 40% 할인

한우세트 등 6,000여 상품 판매...경품 증정도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전국의 우수 특산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체국쇼핑은 맞춤형 상품전, 우수 상품전 등 다양한 상품 기획전을 준비했다. 한라봉과 귤, 한우세트 등 6,000여개

인기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고객들이 명절선물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전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기간 동안 매주 최대 4,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매일 2회(오전10시, 오후 5시) 한정수량을 파격 특가에 판매한다. 참여고객에게 식기세

척기, 공기정정기, 한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체국쇼핑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쇼핑몰, 우편고객센터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다.  
손승현 본부장은 "이번 설에도 힘든 명절을 보내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마음을 담은 선물로 대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소상공인 상품 구매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신협 광주전남본부, 우수직원 표창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광주문화신협 본점에서 '2021년 우수직원 중앙회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창 수여식은 신협정신 실천, 동반성장, 여·수신, 공제, 우수 농소형조합, 조합원관리, 소상공인 및 사회공헌 분야에서 각각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신협 발전에 기여한 20명의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상자는 ▲완도제일신협 김광식 이사장 ▲영암신협 박영실 이사장 ▲방림신협 양용득 주임 ▲보성밀알신협 선행송 과장 ▲광주문화신협 이규상 차장·박정민 주임·문아름 서기·박미성 서기 ▲광주어룡신협 정찬남 차장 ▲강진신협 김양욱 주임 ▲영광광명신협 김안수 차장 ▲우산신협 정아운 서기 ▲순천중앙신협 정기호 전무 ▲별교신협 정호택 전무 ▲광주신협 중앙회 표창 수여식 ▲광주하남신협 김혜진 대리 ▲장면신협 장면 부장 ▲남광신협 이형근 서기 ▲여수참조신협 심상일 차장 ▲쌍봉신협 이명희 전무 등이다.  
조선대 링크+사업단(단장 김춘성) 부기철 교수는 신협-조선대학교 산학협력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선대 링크+사업단은 신협과 산학협력을 통해 150명 이상의 지역인재를 양성, 전국 신협에 연결하고 있다.  
이문규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부장은 "신협은 서민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는 물론 신협 직원들과 함께 강인하게 걸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광주문화신협 본점에서 '2021년 우수직원 중앙회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안마용품, 명절 선물로 인기

안마의자, 안마기 등 안마용품이 지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 전후로 안마기, 안마의자 등 관련 선물로 인기가 높다.  
13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이 있었던 지난해 1월과 9월 한 달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안마의자가 전년 대비 115.1%, 안마기가 42.7% 성장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안마기가 개인건강 및 힐링가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형안마기는 부위별로 집중적으로 마사지 할 수 있고, 안마의자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크기도 작아 1인 가구에 맞춤형이다.  
또한 안마용품은 명절 효도선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 전후로 안마기, 안마의자 등 관련 선물로 인기가 높다.  
광주지역 이마트가 안마용품의 판매량을 분석해본 결과, 설·추석이 있었던 지난해 1월과 9월 판매량은 연간 총 판매량의 27%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이마트 광주점 김세민 점장은 "안마용품 판매 증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노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소비자들과 1인 가구들의 수요도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